

카페에서 만나는 인천의 역사

2023.12.05 기초교육원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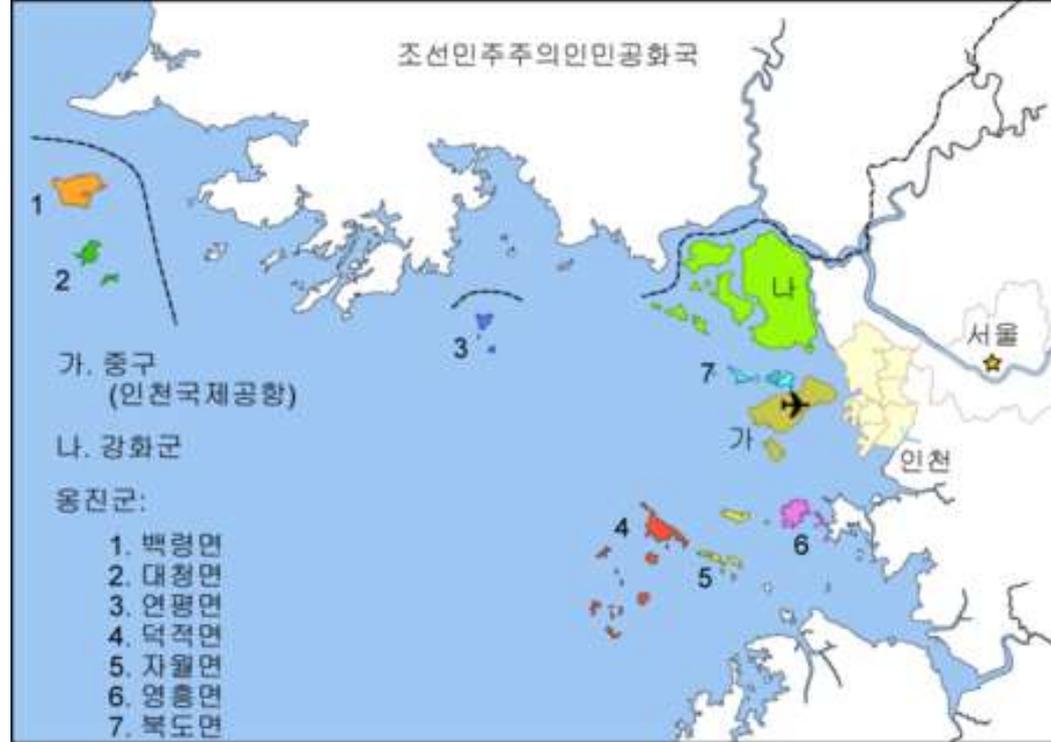


카페에서 만나는 인천의 역사

- 1. 앵커 1883 – 중구 향동**
- 2. 팻알 – 중구 중앙동**
- 3. 싸리재 – 중구 경동**
- 4. 발래터 카페 – 동구 금곡동**
- 5. 앤드아워 – 동구 송림동**
- 6. 오담 – 서구 가좌동**
- 7. 조양방직 – 강화군 강화읍**

인천 지명과 관련된 용어들
미추홀타워, 소성주, 인주이씨

인천은 한국 서쪽의 중간지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
외세가 가장 먼저 접근해 오는 곳



서울에 인접한 인구 약 300만의 국내 3대 도시
남과 북의 접경지

해운, 철도, 항공 발달로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곳

인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의 흔적
인천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긴 시간 형성, 유지되어 온 지역 인천의 흔적을 카페에서 만나보고자
레트로 열풍과 더불어 인천에서 드물게 남기고자 하는 곳
주로 근현대사 관련된 장소

1. 앵커 1883 - 중구





1910년 무렵까지 세관창고가 있던 자리

1960년대 지어진 꽃게 냉동창고 건물과 각종 선구를 제작 판매하던 진원로프 공장⁵

인천의 근대사의 발전은 한국의 국교 확대 과정과 맥을 같이 함.

1876 일본, 1882 중국 미국, 1883 영국 독일, 1884 이탈리아 러시아 ...

1876 부산항, 1880 원산항, 1883년 인천항 개항

일본 해군은 서해안 개항지를 물색하기 위해 제물포 주변을 측량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로 항구로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음.

그러나 수도의 관문인 제물포 개항을 지속적으로 요구. 정치적 의도가 깔림.

조선정부는 국도의 안전과 물가 폭등 우려,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서 반대

힘겨루기 끝에 인천항 개항

개항장 일대 조계와 영사관 설치

각국과의 수호통상조약에서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 허용,
개항장에 조계 형성

자국민의 권익보호와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영사관 설치

인천의 일본조계는 현재의 관동, 중앙동 일대 7천여평

청국조계는 현재의 선린동 차이나타운 일대 약 5천평

서양세력의 각국조계는 그 주변의 약 14만평

경계에는 일본조계, 조선지계 등을 새긴 표석이 있었음.

부두에서 일본조계를 관통하여 서울로 향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늘어서 있었음.

당시 인천의 개항장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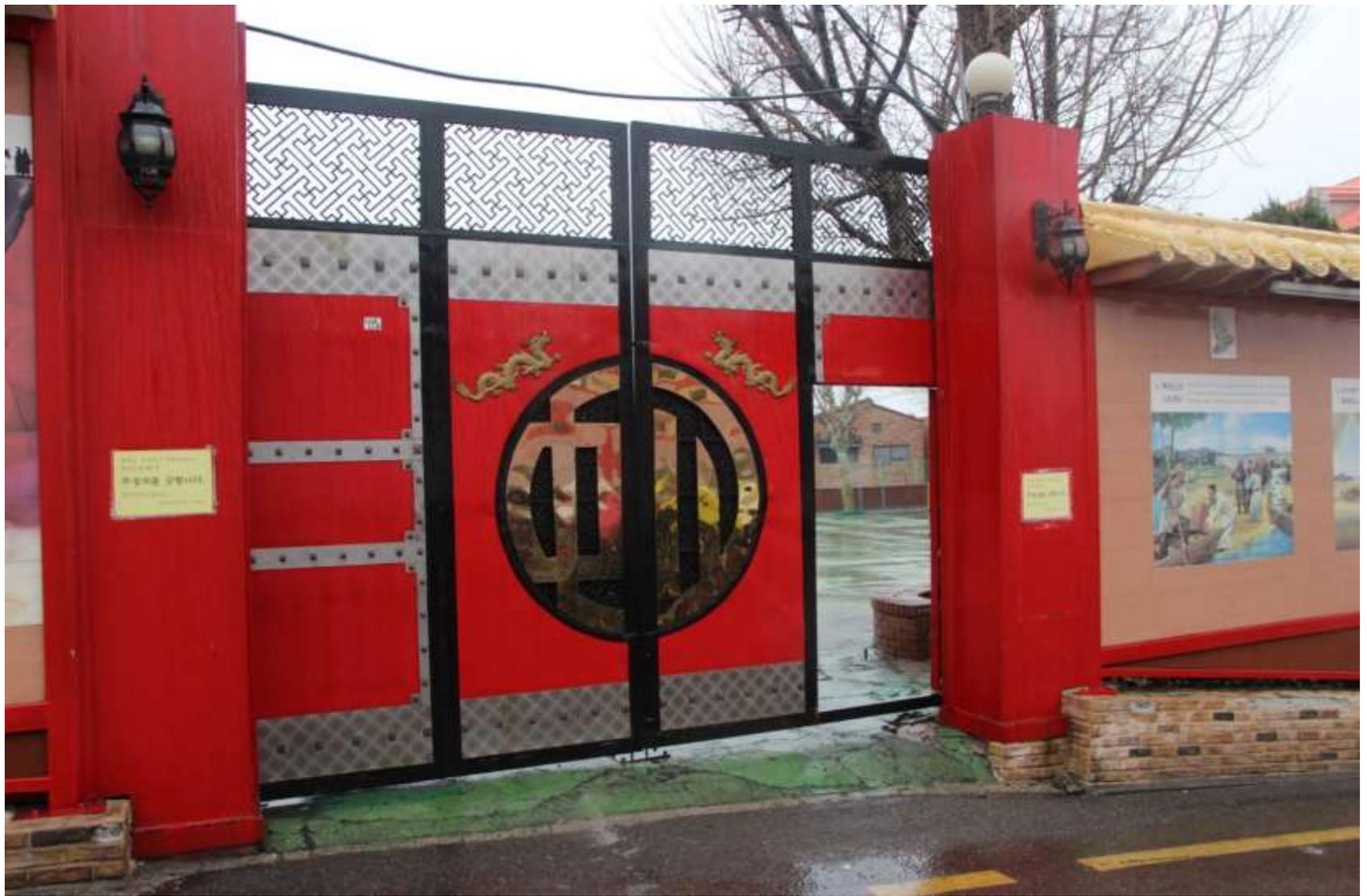


일본영사관 모습. 강점 이후 인천부청으로 사용



청국영사관 회의청





청국영사관 터 - 화교중산학교



영국영사관 모습

2. 팻알 -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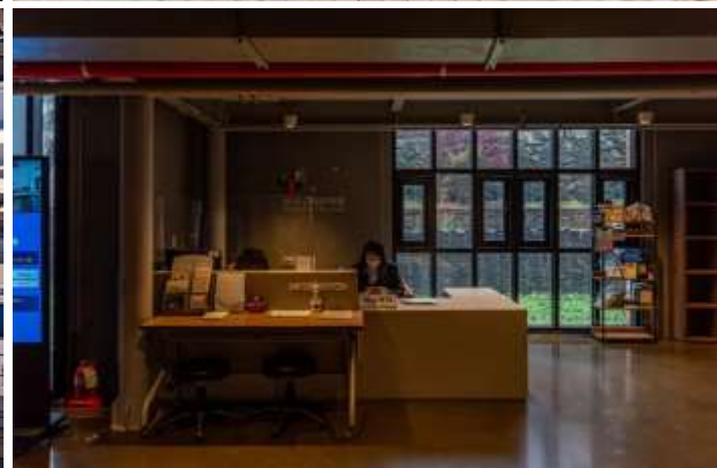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3. 싸리재 - 중구 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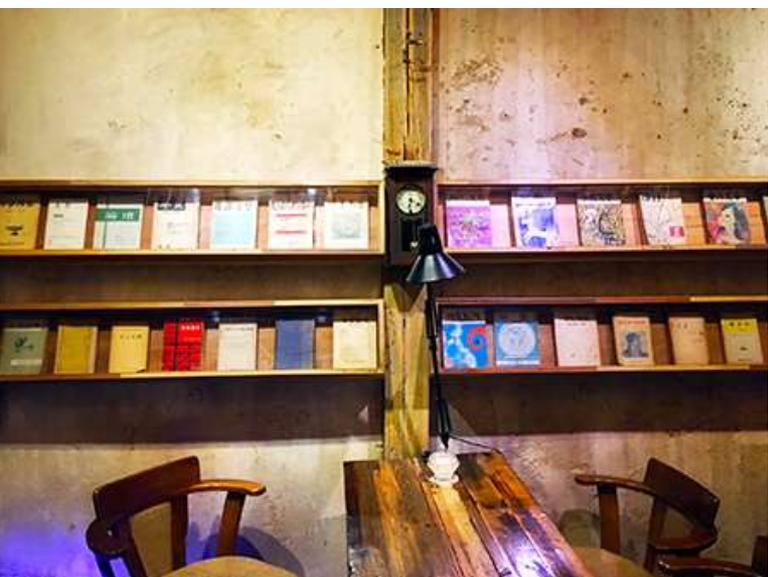


1934년 인천시 조감도





객주 유군성의 2층 상가 건물



**싸리재는 인천 중구의 신포시장에서 동구 배다리시장으로 넘어가는 언덕길
인천항에 내린 사람과 물자가 인천에서 서울로 오가는 최단거리**

**싸리재에 자리잡은 조선인들은 포목점, 잡화점, 양조장 등을 열어 상권 확장,
1920년대 큰 상권 형성**

**인천 객주를 비롯한 상인들은 조선인 자본의 이익을 지켜가는 한편, 상업 정
보를 교환하고, 지역 내 조선인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에 놓여 있었음.**

**일제 지배하 서울에서 일본인 상권에 맞서 조선인 상권을 유지했던 종로처럼,
또 종로를 둘러싸고 조선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북촌처럼,
인천에서는 싸리재를 중심으로 조선인 상권이 형성되었고, 조선인 거주지가
만들어졌고, 배다리시장 등 동구 지역의 조선인 구역으로 연결되었음.
이 일대에 조선인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유흥, 노동과 저항의 공간 형성**

싸리재에는 포목점, 양화점, 미곡 잡곡 중개업, 음식점, 요리점, 제과점, 식료품점, 신문사 지국 등 다양한 점포가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었음.

▪생산과 유통의 공간 - 가장 많은 업종은 쌀과 관련되는 미중개업, 미소매업, 정미업, 양조업, 그리고 포목점, 잡화점 등이 대표적인 공간

**▪소비와 유흥의 공간 - 애관극장, 용동권번 등의 요리점과 유흥가, 전당포
싸리재 진출이 원활하지 않던 일본인들도 전당포, 금융대부업 등으로 진출**

**▪노동과 저항의 공간 - 자본이 풍부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림.
공동숙박소, 직업소개소, 노동자, 사회주의자, 신문사 지국, 잡지사
《인간문제》(1934)의 노동자 거주지 ‘외리 3번지’ ‘사정 5번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확산 -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현재 싸리재 일대에는 앞의 내용을 보여주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음.

영업 규모를 자랑하던 객주 유군성의 상가와 집

장세익의 대일양조장과 그의 생가

1920년대에 지어진 소금창고

1930년대 지어진 상가 건물과 간판이 그대로 있음.

용동권번이라는 글자가 쓰인 화강암 계단



애관극장 (1895년 조선인이 인천에 만든 극장 [協律舍])



**싸리재 골목의 문화재생공간 '잇다 스페이스' 정희석 이영희 부부
1920 소금창고 - 사우나 - 서점 - 폐허 - 문화공간으로의 변신과 활용**

금창동 배다리 그림지도



**배다리마을은 인천항 개항 이후 외국인에게 밀려난 사람들이 살아온 공간
인천의 근현대사와 태동을 함께한 지역으로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못지않게 번성
1970~80년대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시장이 활발했던 곳**

인천 근대교육의 산실

인천 최초의 서양식 초등학교인 영화학교가 일찍 자리를 잡음.

1907 조선인이 지은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 창영초등학교

**한국 기독교의 산실 - 1890년대부터 미국 북감리회가 조선인이 많이 모여 살던
이 지역을 조선의 선교 기지로 삼아 선교와 교육 활동을 벌이기 시작**

일제하 번성했던 배다리시장의 명맥은 해방 후 중앙시장으로 이어짐.

6.25전쟁 후 40여개의 헌책방이 있던 거리

배다리마을의 중심 도로 우각로 쇠뿔고개. 대장간이 많은 쇠뿔고개

인천에서 서울로 오가는 길 경인도로

지금은 개발만능의 도시구획에 맞서 마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음.





아벨서점의 곽현숙 대표와 아벨전시관 2층 '시 다락방'

4. 발레터 카페 - 동구 금곡동





발래터카페 내부의 연못

**시그니처메뉴
진저라떼와 아인슈페너**





**창영초등학교 교지의 사진.
초등학생들이 근로보국대 깃발을 세우고 군복을 받고 있음.**

대공황 이후 식민지공업화와 경인공업지대 구축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수산업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섬.

1937~40년 20여 개의 중공업 군수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조선인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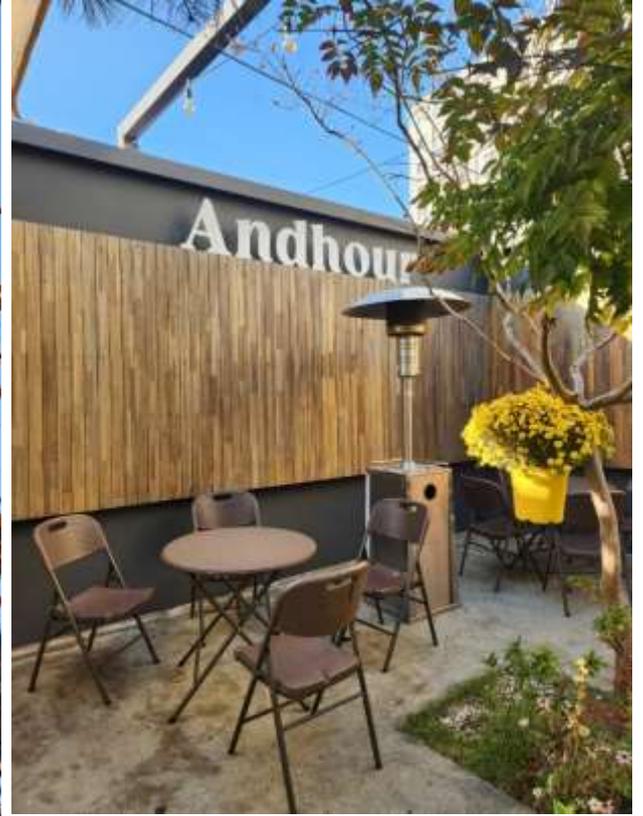
조선기계제작소, 조선이연금속, 도교시바우라전기,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육군조병창, 미쓰비시제강, 국산자동차공업 등

5. 앤드 아워 - 동구 화평동

1941년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 건설. 창고 건물
인천제철, 현대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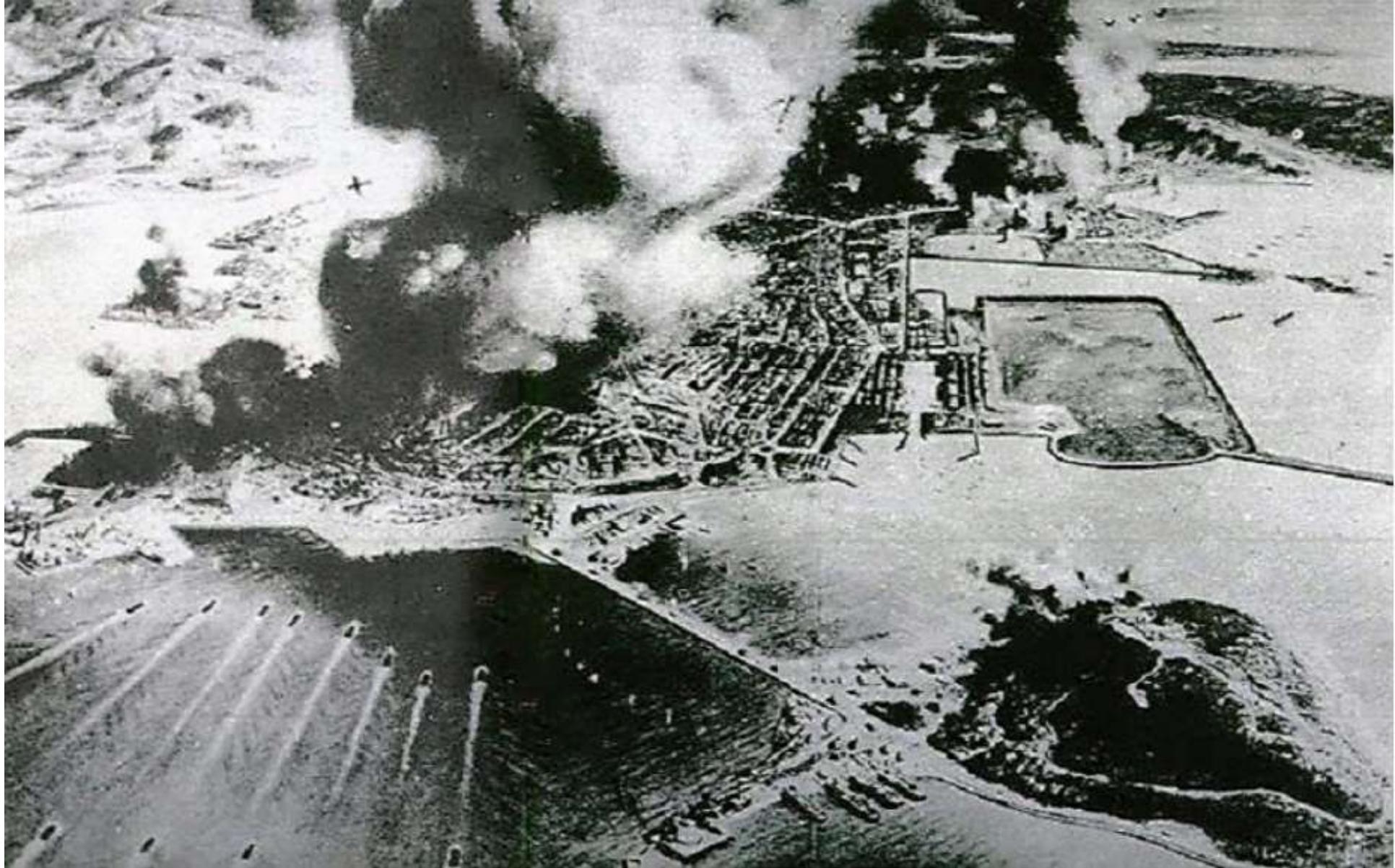


인천은 해방~전쟁 기간 남북의 접경지로서 경계를 넘나들던 월남민이, 또는 월북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았던 지역

6·25전쟁 중에는 인천상륙작전 실시로 대변되는 전략적 요충지 전선이 남북으로 두 차례나 오가며 인천은 해상과 육상에서 커다란 전화를 입음. 그런 만큼 전쟁을 거치면서 인적, 물적으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음.

물적피해 : 인천상륙작전 실시에 앞서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비롯한 시내에 집중 포격을 가해 인천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됨.

인명피해 : 전쟁을 치르고 있던 군인들 만이 아니라 전쟁의 원인을 모르는 민간인에게도 그대로 미침. 민간인이 입은 피해는 무성한 소문에 비해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



인천상륙작전 중 인천 시가지 폭격 상황과 상륙하는 연합군



폭격 속에서 목숨만 건진 사람들

6. 카페 오담 - 서구 가좌동







1600년대 후반 이조참판을 지낸 심한웅 가옥
1940년 증축 시 백두산 소나무를 운반해 목재로 사용
황해도 임경업 장군 사당이 헐린다는 소식을 듣고 매입해서 안채의 기와로 삼음.
6.25 전쟁 당시 피난민 30여 가구를 수용, 우물이 중요한 식수원이 됨.
1960년대 심운섭 선생이 가좌울 야학을 열어 인천의 미취학아동, 성인 교육

7. 조양방직 – 강화군 강화읍



강화도의 식물제조업 발달 – 화문석, 방직산업

강화직물조합 설립, 강화인조 생산 확대

강화 여성의 특징 – 녀살 좋은 강화년, 강화 뽀뽀이

6.25 전쟁 이후 강화인조 수요 급증

**강화도에 심도직물, 평화직물, 이화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공장 60곳,
직원 4천명이 강화읍에 북적임. 딸 셋이면 부자**

조양방직

강화도 방직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1933년 홍씨 형제가 설립한 방직공장

강화도 최초로 50여대의 근대식 직조기 도입, 면방직과 마방직, 염색

1958년 폐업 후 방치, 2017년 미술관 카페로 변신

시멘트 벽과 천장의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 버려진

방직 기계용 긴 작업대를 커피 테이블로 재사용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